스위스 로맨티스트들에게 인증받은 가을맞이 명소 10 선.

스위스 젊은이들도 꼭 한 번 찾아보는 가을 여행지

서늘한 알프스 바람이 분다, 가을이 왔다
3 국 호수 크루즈부터 포도밭 드라이브까지
산장 호텔에서의 로맨틱한 별밤부터 스릴 넘치는 능선 하이킹 및 풍뒤 하이킹까지
고성에 내린 가을빛부터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정원 디너까지
가을 허니무너라면 눈여겨 보아야할 스위스 명소 10 곳

세계기상기구(WMO)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올 여름 폭염은 대단했다. 한국 뿐이 아니었다. 나사(NASA)는 현대 기온를 기록하기 시작한 1880 년 이래 2016 년 상반기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음을 이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 대륙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스위스도 이 뜨거운 여름 기온에 고민이 가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에서 가장 긴 알레취(Aletsch) 빙하가 금세기 말이면 사라진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에서 그 크기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스위스의 빙하와 알프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에서는 과학적인 대응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 여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 낭만 여행자들에게 가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명소 10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자들, 특히 가을 허니무너들이라면 눈여겨 보아야할 곳들을 소개한다.

1. 보덴제(Bodensee) 호수

스위스에는 바다가 없다? 직접 보면 놀랄지도 모른다. 독어로는 “슈배비쉬 메르(Schwäbische Meer)”, 영어로는 “스와비안 시(Swabian Sea)”로도 불리는 보덴제 호수는 크기 자체도 최대 길이 64km 에 최대 너비 12km 로, 바다만큼 크기도 하지만, 지중해에서의 휴가 부럽지 않을만한 모든 것을 선사해 주어 “바다”로 불린다. 아름다운 해안과 탁트인 풍경 속에서 가을 햇살 가득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3 국의 국경에 위치해 있어 유람선을 타고 3 국을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스위스에 속한 호숫가에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들이 줄지어 있어, 유람선을 타고 작은 마을 호핑 투어에 나서봐도 좋다. 로만스호른(Romanshorn), 아르본(Arbon), 로르샤흐(Rorschach)는 보덴제 호숫가의, 고틀리에벤(Gottlieben), 에르마팅엔(Ermatingen),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은 보덴제 서쪽으로 연결된 작은 호수, 운터제(Untersee)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마을들이다. 보덴제와 운터제가 만다는 지점에 있는 마을, 크로이츠링엔(Kreuzlingen)에서는 유럽에서도 손꼽힐만큼 아름다운 호수 크루즈가 시작된다. 크루즈는 운터제 호수를 지나슈타인 암 라인을 지난 뒤, 라인(Rhien) 강을 따라 샤프하우젠(Schaffhausen)까지 이어진다. 취리히(Zurich)나 생갈렌(St. Gallen)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까워 더욱 편리하다.
www.kreuzlingen-tourismus.ch

2.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의 빌라 호네그(Villa Honegg)

경치 자체가 감탄이다. 루체른 호수 지역의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산 위 작은 마을, 엔네트뷔르겐(Ennetbürgen)에 위치한 수페리어 5 성급 호텔, 빌라 호네그의 노천 스파 풀에서는 루체른 호수의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가을 하늘의 오렌지빛 노을이 알프스 파노라마 위로 사뿐히 내려앉으며 로맨틱한 분위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이보다 더 낭만적인 가을 정취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수페리어 5 성 호텔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분위기로 낭만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www.villa-honegg.ch

3. 레만(Léman) 호수 지역의 시옹성(Château Chillon)
2016 년은 세기의 문학가, 로드 바이런(Lord Byron)의 시, "시옹의 죄수(The Prisoner of Chillon)"이 몽트뢰(Montreux)의 시옹성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지 200 주년이 되는 해다. 그의 사인이 남겨진 지하 감옥은 여전히 소름돋게 만드는 음침함이 깃들어 있다. 성 안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 보이는 레만 호수의 가을 풍경은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하다. 레만호숫가 암반 위에 지어진 시옹성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연간 35 만명 이상)를 맞이하는 역사적 건물로, 과거 사보이(Savoy) 왕가의 거주지이자 알프스 남부 및 이탈리아로 향하기 위해 지나야 했던 생 베르나르 고개(St. Bernard Pass)로 가기 위한 통행료를 징수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스위스 젊은이들에게 결혼식 리셉션이나 기타 이벤트를 열기 위한 장소로 인기다. 몽트뢰에서 버스나 유람선으로 찾을 수 있는데, 새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들한들 바람에 나부끼는 꽃들이 몽트뢰에서부터 시옹성까지 산책로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으므로, 여유롭게 산책을 나서봐도 좋다.
www.chillon.ch

4. 슈토오스(Stoos) 산의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하이킹 코스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있는 슈토오스 산에는 능선 코스인 플론알프슈톡 하이킹 코스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리멘슈탈덴(Riemenstalden) 계곡의 가을 빛과 우리(Uri) 호수의 파노라마가 이어진다. 슈토오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가을 바람 선선한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루체른에서 슈토오스까지 찾아간 뒤,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Klingenstock)에 내리면 플론알프슈톡까지 이어지는 능선 하이킹 코스가 나온다. 약 2 시간 30 분간의 황홀한 하이킹이 끝나면 다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오스로 내려오면 된다. 단,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다.
www.stoos-muotatal.ch

5. 체르마트(Zermatt)의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터호른(Matterhorn)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할 수 있다. 고르너그라트 산 정상에 위치한 쿨름호텔(Kulmhotel: 해발고도 3,100m)에서 숙박을 한다면 말이다. 스위스에 있는 34 개의 4000 미터급 봉우리 중 29 개가 펼쳐지는 가을 새벽 고요한 파노라마도 펼쳐진다. 밤이 되면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있는 천체 관측소에서는 별이 쏟아지는 밤을 체험할 수 있다. 마법같은 가을밤을 보내고 싶다면 고르너그라트로 가면 된다는 얘기다.
www.gornergrat.ch

6. 퐁뒤 랜드 그슈타드
낭만적인 가을 소풍을 떠나고 싶다면 그슈타드(Gstaad)로 향해보자. 자아넨란트(Saanenland)에 있는 그슈타드에서 야외 퐁뒤를 체험할 수 있다. 퐁뒤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백팩을 메고 "퐁뒤란트 그슈타드(Fondueland Gstaad)" 미식 하이킹을 떠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퐁뒤 냄비에 둘러 앉아 아름다운 파노라마와 함께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치즈를 맛볼 수 있다.
www.fondueweg.ch

7. 라보(Lavaux) 포도원

가을 햇살에 부서지는 레만(Léman) 호수와 농익어 가는 포도향, 점차 노랗게 물들어가는 포도 단풍을 보고 싶다면 라보로 향해보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포도밭 사이사이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는 가을의 라보를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특한 와인 경작 지역인 라보(Lavaux)는 몽트뢰(Montreux)와 로잔(Lausanne) 사이의 호숫가 언덕을 따라 뻗어있다. 가파르고 좁은 길인 "코르니쉬(Corniche)"를 따라가다 보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농가가 있는 전형적인 돌집 마을을 지나게 된다. 8km2 에 달하는 계단식 포도 경작지 라보(Lavaux)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와인 셀러에서 라보산 와인 테이스팅을 즐길 수도 있다.
www.lavaux-experience.ch

8. 티치노(Ticino)의 폰테 데이 살티(Ponte dei Salti) 다리
티치노의 베르차스카(Verzasca) 계곡은 옥빛 혹은 에메랄드빛 물이 흘러 내리며 주변의 가을 숲 빛과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 낸다. 특히 두 개의 아름다운 아치가 눈에 띄는 폰테 데이 살티 다리는 이 낭만적인 파노라마의 화룡정점이다. 우리 나라의 돌탑처럼 돌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 이 400 년된 다리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다보면 앞날이 좋은 일만 이어질 듯한 기분에 젖는다.
www.tenero-tourism.ch

9. 베른(Bern)에서의 달콤한 아이스크림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베른에서 화창한 가을날을 더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베른의 트랜디한 구역인 랭가스(Länggass)에서는 로컬들이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젤라테리아 디 베르나(Gelateria di Berna)가 그 주인공이다. 로컬들에 의하면 스위스 최고의 아이스크림이라 불리는 집이다. 스위스의 국회 의사당이 있는 분데스하우스플라츠(Bundeshausplatz) 광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바라보며 아이스크림과 함께 달달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www.bern.com

10. 취리히(Zurich)의 프라우 게롤츠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선선한 취리히 가을 저녁을 여유롭고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취리히 서부(Zurich West)에 있는 노천 레스토랑, 프라우 게롤츠 가르텐을 찾아보자. 2012 년 취리히에서 가장 높은(126m) 타워, 프라임 타워(Prime Tower)의 발치에 임시 프로젝트로 시작된 비어 가든이 점점 성장해 숍, 아트, 가든 커뮤니티,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탄생해 로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 산업지대였던 이 공간 한 구석이 따뜻하고 친근한 만남의 장소로 변모한 것이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서늘한 가을 바람 너머로 기찻길과 산의 풍경이 펼쳐지고, 정원에는 가을빛 가득한 단풍이 내려 앉는다. 프라임 타워의 푸른빛이 너울대는 풍경도 아름답다.
www.zuerich.com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